

# “하늘을 알고 땅을 알면 이기지 못할 싸움이 없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 이순신이 지킨 바다

이봉수 지음

임진왜란 중 가장 극적인 전투는 명량해전이다. 13척의 배로 133척 왜선을 물리친 대승이었다. 이순신은 '난중일기'에서 '하늘이 내린 행운'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10배가 넘는 대규모 왜군을 진압한 것은 뛰어난 전략, 전술, 하늘의 도움 등이 맞물린 결과였다.

이순신에게는 다음과 같은 지문이 있었다. “하늘을 알고 땅을 알면 이기지 못할 싸움이 없다.” 천문에 대한 지식, 지리를 활용한 전략과 전술을 세웠다 는 의미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거기에서 비롯됐음을 알 수 있다.

(사)서울여해재단 이순신학교 교장 이봉수는 20년 넘게 이순신 전략을 연구해온 전문가다. 해전 현장을 답사하며 전적지 지리와 연계해 이순신 전략을 파헤쳐왔다. “이순신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가 전투를 치렀던 장소를 직접 봐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이순신이 싸운 바다', '한려수도', '섬에 있는 암자를 찾아서' 등과 같은 책을 통



해 이순신의 정신과 리더십을 연구하고 선양하는 일을 펼쳐왔다.

이번에 이 교장이 펴낸 '이순신이 지킨 바다'는 승전 현장을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장 지리를 토대로 모든 해전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의 전략과 승리의 비결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저자는 첫 승리를 거둔 옥포해전에서 마지막 승을 거둔 노량해전까지 300여 차례 넘는 답사를 했다. 진영을 꾸렸던 장소, 해전지, 정박지까지 둘러보며 이순신의 흔적을 확인했다.

저자는 답사를 진행하며 '난중일기', '임진장초' 등에 등장하는 지명을 김정호의 동여도를 비롯한 고지도로 찾아내고 이를 현대지도에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향토사학자들, 지역주민들을 인터뷰해 찾아냈다.

이순신의 전략은 최적의 장소에 최고의 진영을 세웠다는 점에서 빛난다. 조선수군의 기틀을 다진 여수 전라좌수영은 천혜의 요충지다. 저자는 “왼쪽으로 나가는 수로와 오른쪽으로 돌산대교 아래 장군도 사이로 진출하는 수로를 끼고 있는 좌수영 터는 완벽한 요새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곳에서 이순신은 거북선 시험 운항에 성공했으며 지자총통과 현자총통을 시험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

한산대첩으로 왜군 기세를 꺾은 이순신은 이듬해 삼도수군통제사로 임명된다. 삼도수군통제령 시설을 창건하고 군비 증강에 총력을 기울인다. 한산도는 임란이 일어나기 전에는 목장으로 사용되던 섬

으로 입구가 좁고 안쪽이 넓어 지세가 수군기지로 최적이었다. 이순신은 143척 불과했던 전선을 250척으로 늘리고 군량미 확보와 군수품 비축에 심혈을 기울였다.

앞서 언급한 대로 가장 드라마틱한 전투는 명량해전이었다. 이순신은 1597년 10월 영산강 하구에 있는 고하도에 정착했다. 당시 보화도라고 불린 이곳에서 108일 동안 머물며 진영을 꾸리고 전열을 가다듬었다. “북쪽 봉우리에서 목재를 베어다가 진영과 군량창고를 지었고, 인근의 군수와 협감으로부터 기부를 받고 해로통행첩을 발급하여 백성들에게서 486석이나 되는 군량미를 조달했다.”

고금도는 최후의 일전을 준비했던 섬이다. 명량해전으로 재해권을 되찾고 고금도로 옮겨오자 난민과 장병들이 돌아왔다. 이순신을 따라 모여든 피난민들이 둔전을 경작했던 이곳에는 지금도 다른 섬에 비해 농지가 많은 편이다.

이순신의 연전연승의 비결에는 정보망이 자리했다. 적의 이동, 동태를 살피기 위해 높은 산에 망군을 파견해 운용했다. 고성군과 통영시 경계에 있는 백방산이 대표적이다. 다양한 정보채널을 가동했는데 한산대첩 대승의 요인 가운데 하나가 민간인 첩보였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적은 병력으로 적을 섬멸한 또다른 비결은 ‘망’ 혹은 ‘목’을 지키는 것이었다. 임란 당시 좁은 길목을 굳건히 지켜 왜군의 진출을 막았던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이밖에 조류와 파도의 흐름을 면밀히 살펴 전투에 활용한 전략도 중요했다. 천문과 지리에 능통했던 이순신의 진면목과 연관되는 부분이다.

〈시루·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임진왜란 당시 남해안에 위치한 4개의 수영



조선의 판옥선은 평지선으로, 내부에 함포를 장착할 수 있고 180도 회전이 가능하여 당파전술에 유리한 구조였다.

## 결에 있다는 것

김중미 지음

고3인 지우는 은강방직 투쟁을 이끈 해고 노동자 이모할머니 삶을 소설로 그리고 싶다는 꿈이 있다. 은강방직에서 일하던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외할머니와 살아가는 강이는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간호조무사를 꿈꾼다. 여울이는 교대에 진학하고자 입시에 매달린다.



은강이라는 지역에는 가난한 노동자들이 모여 산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꿈' 무대인 은강은 소설 속 1970년대 풍경과 달리 판자촌 대신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성공을 좇는 사람들은 은강을 떠나 신도시로 터전을 옮겼다.

'팽이부리말 아이들'의 작가 김중미의 장편 '결에 있다는 것'에는 근현대사의 굵직한 굵이들을 살아온 평범한 이웃들의 삶이 담겨 있다.

소설의 무대는 은강. 이곳에는 오늘도 여전히 '난장이 가족'과 다름없는 가난한 노동자들이 모여 산다. 어느 날 구정에서 은강구를 '관광 자원화'하겠다는 명목으로 '쪽방 체험관'을 추진한다. 문제는 주민들의 생활 공간을 침해할 뿐 아니라 자본의 논리 앞에 가난마저 상품화된다는 것이다. 지우, 강이, 여울이는 주위 친구들과 함께 이에 맞서기로 한다. 이 과정에서 친구들은 서로를 이해하는 한편 차가운 현실을 깨닫는다.

작품 속 작가의 눈길은 여전히 '사람'에게로 향해 있다. 시선이 머무는 인물들은 혼자서는 돋보이지 않더라도 함께하면 빛날 수 있는 밤하늘의 별자리와 같다.

"사람들은 주변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눈길의 가장자리가 더 빛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우리처럼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보고 더 빛날 수 있잖아."

〈창비·1만4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사랑은 내가 주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김삼환 지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고통이라면 아마도 이별이 아닐까 싶다. 배우자와의 사별, 지인과 이별 그리고 상실은 예고 없이 들이닥친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끝없는 '이별 연습' 속에서 자신만의 생을 살아가는 것인지 모른다.



불의의 사고로 아내를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고 슬픔을 이겨낸 이가 있다. 강진 출신 시조시인 김삼환. 그는 30년간 함께 살았던 아내를 떠나보낸 아픔을 견뎌냈다. 이후 펴낸 '사랑은 내가 주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눈물을 이겨낸 기록이다.

생전의 아내는 외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봉사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 저자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코이카 국제봉사단에 지원해 카라칼파크국립대에서 한국어를 가르쳤다. 은행에서 오래 근무했으며 한국시조 신인상으로 등단한 시인이기도 한 그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글을 썼었다.

이번 책에는 아내와 사별 후 사후처리를 위해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나 낯선 이국에서 적응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저자는 한국에서 누렸던 편리함을 내려놓고 타국에서 삶을 펼쳐나간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고 불평하는 데 시간과 감정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마른 먼지를 피하는 방법도 익혀야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말에 생각이 들고 행동에 에너지가 솟구치는 것을 느낀다. 이처럼 저자는 출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았던 터널에서 빠져나오며 마침내 빛의 세상으로 나온다. 삶은 무엇이 되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숙고하는 과정이라는 소박한 깨달음을 갖고서.

〈마음서재·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고전의 바다에서 지혜를 닦는 법

이한우 지음

"다음 세대에 전하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어렵지만 한 고전을 왜 공부해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문화부장을 역임한 이한우는 "고전은 단순히 머리만을 채워주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음을 길러줍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동서양의 고전들을 섭렵해 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참으로 풍요로울 것입니다"라고 답한다.

각계 명사에게 '다음 세대에 꼭 전하고 싶은 한 가지'가 무엇인지 묻고 그 답을 담은 인문교양 시리즈 '아우름'의 마흔아홉 번째 책 '고전의 바다에서 지혜를 닦는 법'이 출간됐다.

'이한우의 주역'을 펴내고 '이한우의 태종실록'을 출간중인 저자는 고전에서 지혜를 얻는 법을 전하기에 앞서 먼저 번역의 중요성과 그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한다. 또 '조선왕조실록', '논어', '대학연의', '한서', '주역' 등을 공부하고 번역하며 겪어야 했던 어려움과 뜻하지 않게 만난 즐거움을 전하며, 이를 통해 기존의 선입관과 편견을 깨뜨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다.

책은 '번역은 나의 운명', '모든 한국인의 고전', '조선왕조실록'의 바다에 뛰어들다, '논어', '가벼운 트레킹이 아니라 압박 등반하듯 올라야 하는 책', '고대 한나라 역사서 '한서' 번역에 도전하다', '마침내 유학의 최고봉 '주역'에 오르다' 등 총 7장으로 구성됐다.

저자는 "어려움에 부딪히면 피하려 하지 말고 정면으로 도전하라. 그런 사람만이 끝에 가서 웃을 수 있다"며 "쉽지 않더라도 정복했을 때의 즐거움은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한다.

〈센터·1만2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Belton

2015~2019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연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역박람회 [혁신기술] 수상

2017 미국 빈 이노베이션 어워드 (IGC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서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